

하늘공원

오 대 환(시인)

먹고살다 내다 버린 쓰레기 산마루에
도토리 아람 벌고 산수유 익어가며
억새꽃 하얀 물결이
노을 속에 춤춘다

허물도 주검도 세월 속에 승화되어
악취 더미 불모지가
청산이 되었구나
설익은 세월은 없다 시간이 약이려니

살다가 생긴 상처 도지고 쓰라릴 때
회한일랑 갈바람에 사뿐히 부러놓고
한 번쯤 걸어 가보세
하늘공원 억새 길

쓰레기 산마루여서 악취더미 불모지가 상처 도지고 쓰라릴 텐데 억새꽃 하얀 물결 춤추고 청산이 되어 하늘공원으로 살아났다. 이름만 보면 난지도(蘭芝島)라 난이 많이 자라는 섬일진데 무슨 인연으로 쓰레기처리장이 되었는지 신음을 하다가 유용하게 쓰여지는 대변신의 터전이 되었다.

그야말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처럼 정비된 대변환이다. 회한일랑 갈바람에 사뿐히 부러놓고 한 번쯤 걸어 가볼만한 곳이 하늘공원이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공원이다. 떠 있다거나 하늘과 맞닿아 있으니 억새나 유채, 개나리와 해바라기를 벗 삼거나 하늘 위를 걷는 길이다.

언제 그런 과거가 있었냐는 듯 시치미 떼고 있는 모습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처럼 알 수가 없다. 평소에 잘 지내야 인생이 역전이 되더라도 곤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윤제철)

무심한 오빠

조 흥 제(수필가)

KBS에 ‘찾고 싶은 사람’이라는 프로가 있다. 이번 주에는 중견 가수 김혜연씨의 사연이 나왔다. 그녀는 30여 년 전인 20대 때 인천의 수제화 제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했다. 40대였던 사장은 손수 가죽구두를 만들면서 가수 지망생인 김혜연씨에게 물적-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가 가수가 되어 첫 앨범을 갖다 준 후 바빠서 찾아보지 못했다. 30년이 지나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인천의 그 제화점 주인이었다.

그래서 KBS 제작팀과 함께 인천으로 가서 그 제화점을 찾으니 음식점이 되었다. 사장님과 점심을 먹으러 다니던 음식점 몇 군데 다니다 사장을 만나러 가자고 하여 부푼 가슴을 안고 갔는데 내려 보니 ‘추모의 집’이었다. 사장님이 죽은 것이다. 김혜연씨는 땅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자 제작팀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사장의 영정 앞에서 아직까지 낸 한 보따리의 가곡집을 펴 놓고 통곡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가슴을 치고 울었다. 김혜연씨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비참하게 죽은 여동생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2007년에 낸 한국전쟁 체험기인 ‘長湫 가는 길’의 끝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피란 다닐 때 아홉 살의 어린 몸으로 고생을 많이 했던 여동생, 1·4 후퇴 때는 찢어진 검정고무신을 신고 눈 위를 걸었던 어린이. 다니던 회사에 불이 나서 여동생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의 한창 피어날 꽃송이가 피어 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잘 잤다 오라고 손을 흔들면서 서로가 출근길에 올랐는데 퇴근해 보니 죽었다고 한다. 도무지 사실로 믿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동생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였다. 교인은 아니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 주신다는 말을 들었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았다. 회사 마당에 안치된 동생의 시신을 보려고 갔더니 어른들이 못 보게 말했다. 휘영청 밝은 달을 올려다보니 달 속에 활짝 웃는 동생의 얼굴이 들어 있다. 저 얼굴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다니……. 며칠 후 한줌의 재가 된 동생의 유골을 안고 회사 사람들의 안내로 교외 붓도랑에 가서 뿌리라고 하는데 팔이 움직여지지 않아 일행들이 덕담을 하면서 뿌렸다.’는 내용이다.

여동생은 창고 안에서 일하는데 책임자가 문 앞에 쌓아 놓은 세라믹 재료에 불이 붙는 가 실험해 본다고 라이타 불을 켜서 붙이는 순간 확 퍼져 입구를 막아 안에서

일하던 두 사람도 나올 수 없었고, 창고는 홀라당 다 탔다. 그러니 회사가 얼마나 원망스러운가. 회사에서는 우리를 달래느라고 절에 가서 동생의 명복을 비는 행사를 치러주었다.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겠다고 했다. 이건 우연이나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회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살인이라고 우리는 보았다. 결국은 타협이 안 되어 소송까지 가서 이겼지만 동생이 생각나 도저히 대전에서 살수가 없었다. 집안의 모든 물건에 동생의 손길이 묻어 있고, 거리에서 동생과 같은 처녀의 모습을 보면 통곡을 하고 싶었으니 부모님은 더하셨으리라. 그래서 고향(경기도 장단) 가까운 서울로 이사하였다.

이제 내 나이도 80이 넘어 저 세상으로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아 살아온 길을 뒤 돌아보니 먼저 까맣게 잊고 살았던 비참하게 죽은 여동생이 떠올랐다. 그 보상금으로 서울로 삶의 등지를 옮겼으면서도 동생이 죽은 날짜도 모를 뿐 아니라 그 사실조차 잊고 살았으니.

여동생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내 마음이 풀릴까? 영정을 안치했던 사찰을 찾고 싶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60여 년 전 그 기록이 회사에는 있을까? 설사 그 절을 찾는다 해도 유가족이 찾아와 보지 않는 영정을 아직까지 두었을 것 같지는 않다.

여동생을 죽인 회사가 동아연필이다. 인터넷에 동아연필을 클릭했더니 나온다. 대전 대덕구에 있고, 필기구인 볼펜, 연필, 샤프, 샤프심, 캐릭터 상품, 형광펜, 물감, 사인펜, 매직, 보드펜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다. 옛날 126 명의 사원 규모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반가웠다.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가족의 무사고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어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기도도 드린다.

여동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을 모르고 갔지만 순수한 여동생 금순이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살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아연필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다. 그때는 미웠지만 어쩔거나 거기서 받은 보상금으로 삶의 거처를 옮겼으니 지금 생각하니 고맙다. 동아연필은 46년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문구회사로 사고 당시에는 문화연필과 쌍벽을 이루었다. 육각형 누런 동아연필을 쥐고 진하게 써지라고 연필 심에 칩 발라가면서 글씨를 썼던 우리 세대다. 2018년에는 290억 원의 매상고를 올려 전년도에 비해 100억 원이 줄었다니 안타깝다.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란단다. 내가 힘이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3대 가업을 어렵게 이어가는 동아연필에 애착이 간다. 내일부터 하나님께 동아연필 회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는 기도도 하기로 했다.